

영화 「구스범스」에 등장하는 슈퍼 사마귀!  
시작부터 압도적이다!

구스범스®



**18 쇼크 거리의 악몽** R.L. 스타인 지음 · 전명진 그림 / 신유선 옮김

\* 2016.1.7 발행 / 140\*205 / 184쪽 무선제책 / 8,500원 / ISBN 978-89-6548-182-9 74840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 전 세계 4억 2천만 어린이의 선택 「구스범스」 최고의 반전! 아아아~ 쇼크!

\*\* 미국국립교육협회 어린이 선정도서

\*\*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Nickelodeon Kids' Choice Awards) 3회 연속 수상

전 세계 어린이 책 베스트셀러 2위 「구스범스」 시리즈. 미국에서는 그중 몇 편을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영했다. 이번에 출간된 『구스범스 18. 쇼크 거리의 악몽』은 1996년 드라마 방영 당시 ‘최고의 반전’으로 손꼽힌 바 있다.

숨 막힐 듯한 긴장 속으로 독자를 몰아넣다가 예상치도 못한 반전으로 혀를 찌르는 방식은 「구스범스」 시리즈의 트레이드마크이다. 이번 편은 「구스범스」의 열혈 독자라면 익숙할 그 방식을 더욱 교묘하고 정교하게 다듬고 엄청난 스케일을 더했다.

2016년 1월 14일 국내 개봉을 앞둔 영화 「구스범스」에서 거대한 날개를 비벼 대며 혀를 날름거렸던 ‘슈퍼 사마귀’가 바로 이번 편에 등장한다.

이야기의 배경은 거대한 영화 촬영 세트장. 세계 최초로 관람객에게 공개될 이곳에 어린이 두 명이 초대된다. 평소 좋아했던 공포 영화 「쇼크 거리」의 세트장을 본다는 기대로 어린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신이 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요하고 킁킁한 동굴 속에서 끈적이는 침을 뚝뚝 흘리며 앞길을 가로막는 슈퍼 사마귀의 출현에 어린이들은 몹시 당황한다. 너무나도 생생한 날갯짓 소리, 발을 비벼 대며 먹잇감을 위협하는 모습……. “이게 정말 가짜 맞아?”

### 목덜미에서 꿈틀대는 벌레, 해골이 가득한 열차, 늑대의 울음소리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진실은 어디에?

귀를 쨍쨍 울리는 사운드, 거대한 영상이 살아 움직이는 영화. 영화가 허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잊게 만들수록 영화의 매력은 점점 커진다.

단짝 친구 에린과 마티는 「쇼크 거리」의 세트장을 관람하면서 바로 그런 경험을 한다. 사물이 저절로 움직이고 한꺼번에 수십 개의 촛불이 혹 꺼지는 ‘유령의 집’은 정말 볼 만했다. 또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끈적거리는 하얀 벌레들은 로봇이라고 생각하니 재밌었다. 그런데 둘의 몸을 옥죄듯 감아 오는 거대한 거미줄과 진흙 속에서 튀어나와 발목을 감아 대는 초록색 손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입안에 가득 차 오는 진흙, 거기에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며 에린과 마티의 뒤를 쫓는 늑대 인간까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진짜라고 했던 에린, 점점 그 사실을 믿게 되는 마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거대한 영화 산업을 매력적으로 다루는 듯하다가 허구일 때만 즐길 수 있는 인간 본성을 냉정하게 드러낸다.

끝에서야 드러나는 이번 편의 반전은 가히 역대급이다. 마티가 공포 영화 최고의 캐릭터 쇼크로를 만나러 가는 길, 갑자기 에린과 마티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낯설어진다. 악몽이 되어 버린 영화 촬영장의 진실은 무엇일까? 에린과 마티는 그 진실에 닿을 수 있을까? 독자들이여, 허구 속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마라.

## ● 작가 소개

###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 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 책으로 꼽힌다.

[www.rlstine.com](http://www.rlstine.com)

### 그린이 전명진

SI 그림책 학교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쓰고 그린 책 『달집태우기』로 ‘제4회 앤서니 브라운 & 한나 바르톨린 그림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린 책으로는 『구스범스 16. 진흙 괴물의 복수』가 있다.

### 옮긴이 신유선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번역학을 전공했다. 어린이·청소년 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찾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신기한 숫자 나라 넘버랜드』, 『도서관 생쥐』, 『포피케틀』 등이 있다.

## ● 영화와 함께 읽는 「구스범스」

2016년 1월 영화 「구스범스」 대개봉!

### 구스범스 01. 목각인형의 웃음소리

영화에서 괴물 부대의 수장으로 나오는 목각 인형 슬래피가 등장하는 책.

### 구스범스 13. 투명인간의 저주

영화에서 강력한 반전을 선사하는 투명인간을 다룬 이야기이다.

### 구스범스 호러특급 1 좀비 핼러윈 파티

공동묘지를 지나다가 스타인을 붙들고 늘어진 좀비. 이 책에서 또한 공동묘지에 서식하며 한 동네를 무시무시한 혼란 속으로 빠뜨린다.

### 구스범스 17. 초능력 설인의 습격

영화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괴물, 설인이 등장한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 설인이 나타난다는 설정이 재미있다.

**구스범스 18. 쇼크 거리의 악몽**

영화 속에서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서 보는 족족 몽개고 짓밟는 거대한 사마귀. 그 사마귀가 특별 등장하는 책.

**구스범스 호러특급 3 난쟁이 도깨비의 복수**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살벌한 행동을 일삼는 석고상, 난쟁이 도깨비가 으스스한 공포를 선사한다.

**구스범스 19.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블롭(가제)** (근간, 2016.1 출간 예정)

꿀렁꿀렁 스타인까지 먹어 치운 괴물 피, 블롭이 세상을 위협한다!